

#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 메가아시아적 접근의 함의\*

**윤종석**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최경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이주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을 넘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장될 필요를 제기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수평적 외연·내포와 역내외의 상호 관계(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등)를 통해 재구성되는 동아시아의 함의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를 제기한다. 메가아시아적 접근방식은 기존 동아시아담론과 동아시아공동체론의 비판과 대안으로 제시되기보다는, ‘동아시아’란 질문을 아시아와 세계 차원으로 확장할 필요와 가능성을 제기한다. 아세안적 방식으로 지역형성을 해 온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을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등장한 ASEAN+N 전략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이 자기구성하는 ‘동아시아 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역’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를 제시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가,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와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한 네트워크적 접근의 필요를 제기하면서, 지역과 지역이 연동하는 아시아로서 메가아시아적 접근방식의 과제와 함의를 도출한다.

**주제어** 한국, 동아시아, 동남아, 동북아, 지역, 메가아시아적 접근

## I. 서론: 흔들리는 세계, ‘동아시아 지역’이란 질문

최근 ‘동아시아 지역’은 ‘아시아의 세기’ 담론,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성,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긴장 고조 및 안보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강대국화, 미국의 (동)아시아로의 회귀 사이에서 동아시아 역내 국가·사회 내에서도 기존의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라는 지역 구분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새롭게 인식하고 전략적·학술적으로 탐색하는 시도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2021년 현재, ‘동아시아 지역’이 ‘아시아 시대’의 대표주자로서 부각되고 논의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6A3A02065553).

가 활성화되는 근저에는, 세계화의 빠른 진전 속에 서구 주도의 세계질서/체계가 동요하는 과정에서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치열한 탐색의 과정이 놓여져 있다. 즉, 동아시아 지역이 지정학, 지경학, 지문화적 차원에서 과거 ‘주변부’로서의 성격을 벗어나 가장 핵심적인 지역 중 하나로 거듭나면서, 외부자적 시각과 내부자적 관점이 교류하고 긴장하는 새로운 국면, 나아가 세계질서/체계의 변동을 구성하는 힘을 갖춘 (또는 갖출 수 있는) 지역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지경학적 측면에서 최근 아세안 국가들의 빠른 추격과 글로벌 산업구조의 동아시아로의 공간적 외연 확대, 지문화적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문화생산자로서의 역할 증대와 영향력 및 역내 상호교류의 증대, 지정학적 차원에서 한반도/대만/홍콩 문제, 남중국해 및 해양도서 영토분쟁 등 탈냉전과 탈식민, 미중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범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사안들이 아시아 지역, 특히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한국 국내에서도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이란 질문은 ‘동아시아 담론’<sup>1</sup>의 형태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아 왔다.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되짚어볼 성찰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적 문제를 보다 주체적으로 적극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이란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은 보다 적극적으로 상상·고안되고 실천·실현의 핵심적인 장으로 삼기 시작했다. 한국 내 ‘동아시아 담론’은 ‘동아시아 지역’을 단순한 지리적 범주를 넘어 지역질서, 경제권역, 문명권, 사유공간, 연대의 장 등으로 사고·상상할 수 있는 풍부한 담론장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윤여일, 2016). 냉전질서의 해체와 세계화의 흐름이 개별 국가를 넘어 ‘동아시아’라는 ‘지역(region)’에 주목할 배경을 마련했다면,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공동의 위기에 대응하여 역내 국가 간 실질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아세안+3(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제도화를 진전시키는 기초를 놓는 데 기여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동아시아 지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

<sup>1</sup> 본 논문에서 ‘동아시아 담론’은 단순히 이론적·학술적 논의를 넘어, 다양한 정책과 실천의 근간을 이루는 동아시아에 대한 다양한 인식, 상상, 실천의 양태를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의미로 사용한다.

역을 넘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장될 필요를 제기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수평적 외연·내포와 역내외의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상호관계를 통해 재구성되는 동아시아의 합의와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를 제기한다. 거대하고 다양하며 분열적이기도 한 아시아를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정치체(polity)로 이해하기엔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나(Acharya, 2011; Subrahmanyam, 2016), 탈냉전 이후 전 지구적 질서의 변동 가운데 아시아가 하나의 지역으로서 특성을 지니는 실체로서 질적인 변모를 시작하고 있고(Chang, 2014),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고 분석할 필요가 커 가고 있음(신범식, 2021)에 주목한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지역적 부상'(Cumings, 1984), 역내 교류와 연결성의 급속한 증대, 서구 강대국 중심의 양자관계를 넘어 다자관계를 모색하는 환경 변화 등은 더 이상 서구의 눈이 아니라, 아시아 스스로의 눈으로 아시아를 바라보려는 노력과 시도의 일환으로 동아시아를 새롭게 바라볼 필요를 적극 제기한다. 어쩌면 우리는 다시 한 번 강하게 “왜 동아시아여야 하는가?”와 “무엇을 위한 담론인가?”(윤여일, 2016)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논의는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를 포괄하는 지역 단위로의 사유와 실천 등 질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 '동아시아 담론'이 동아시아를 욕망하면서도 내재적인 한국/한반도 중심성(또는 '특권화')의 논리로 한국 지식계에만 통용되는 내수용 담론으로 굳어 갔던 한계를 갖는데 반해(윤여일, 2016), 동남아시아지역과의 교류와 연결성이 확대되는 추세와 조응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동아시아에 대한 지역 단위의 사유와 실천을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해 볼 시점이다. 하지만, '동아시아'란 이름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조되어 온 '생성/형성(becoming)' 과정에 있어 왔고(고성빈, 2012), 서구 이론의 수입 또는 대치를 넘어서며 타자와 주체를 통합해 온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다(이정훈·박상수, 2010). 특히,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중갈등의 격화를 배경으로 하는 강대국 중심의 지역 전략과 위계적 시야를 넘어, 각 사회의 고유한 개별성을 존중하면서도 연결시킬 수 있는 '연동하는 동아시아'(백영서, 2011)의 시각<sup>2</sup>

<sup>2</sup> 윤여일 외(2018)는 백영서의 '연동하는 동아시아'론을 중심으로 한국발 동아시아론의 현재와 미

을 기반으로 타자와 주체를 통합하며 보다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수립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를 필요로 한다. 한국발 동아시아 담론이 문제의식의 출발을 현실에 두고 이론의 개발 못지않게 현실적합성을 당면과제로 삼았던 점(윤여일 외, 2018)에서, 담론과 실천을 포괄하는 새로운 시야의 개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빠른 지역화와 지역성 ‘생성/형성’에 주목하여 동아시아 지역 내외를 아우르는 메가아시아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sup>3</sup> 메가아시아적 접근은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고 아시아 내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들(regions)이 지구적 및 지역적 동학을 통해 상호연결됨으로써 구성하는 거대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변동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아시아 내의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틀이자, 상이하면서도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가진, ‘여럿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지역’으로 발현되어 가고 있는 거대지역으로서의 아시아를, 아시아 스스로의 눈으로 발견할 필요를 전략적·학술적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이다.

메가아시아적 접근은 기존의 동아시아담론과 동아시아공동체론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제기되기보다는, ‘동아시아 지역’의 수평적 외연·내포와 역내외의 상호 관계(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등)를 통해 재구성되는 동아시아의 함의와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를 제기한다. 지역 내부의 연결성과 상호참조성에 주목했던 ‘연동하는 동아시아’론(백영서, 2011), ‘네트워크로서의 아시아’란 관점(손정렬 외, 2018)과 더불어, 동남아시아의 지역성을 고도화해 왔던 ‘아세안 방식(ASEAN Way)’의 성과를 활용하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을 모색하는 ‘메가아시아적 접근(MegaAsian way)’의 가능성과 함의를 적극 모색한다.<sup>4</sup> 최근 들어 ‘아시아’를 메가지역(mega-region)으로 포지셔닝하

래를 점검한다.

<sup>3</sup> 메가아시아적 접근에 대해서는 본 특집호에 게재된 신범식(2021)의 논문을 참고할 것.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메가아시아적 접근의 가능성과 함의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둔다.

<sup>4</sup> 이런 점에서, 아시아 지역사를 ‘연결’과 ‘네트워크’의 관점 및 교류사, 지구사의 맥락에서 해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신범식, 2021). 대표적인 연구로는 Milner and Johnson(1997), Abalahin(2011), Lieberman(2003, 2009), Singh and Dhar(2014) 등을 참조.

는 담론적 실천이 늘어 가는 가운데(신범식, 2021), ‘담론적 실천’에 의해 명칭이 확산·공유되는 과정과 더불어 그것을 구성해 나가는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의 제도화’ 과정으로서 ‘지역 형성(Building Region(s))’(Langenhove, 2011)에 주목하여 ‘네트워크화된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를 새롭게 바라보는 데 기여코자 한다.

우선,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는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왜 새롭게 ‘동아시아’란 지역 개념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현재 동아시아의 ‘지역화’가 기존의 국가 경계를 넘어 지역 내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가운데, 식민/냉전 등으로 ‘잃어버렸거나 혹은 왜곡되거나 단절된’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식, 발견, (재)구성하는 ‘지역격(regionhood)’에 주목할 필요를 제기한다. ‘동아시아 지역’의 중층성을 살피면서 ‘지역화’의 다층적인 현상들이 ‘동아시아’ 인식 및 개념을 ‘지역’으로서 새롭게 확장/(재)발견되는 과정을 수반하고 그 필요를 제기했음에 주목하면서, 서구/서양 개념과 대비되는 동양/동방 개념을 넘어서 ‘동아시아’를 지역의 의미로 새롭게 재발견해야 할 필요와 과제를 제기한다.

다음으로, 지역에 대한 주목과 새로운 지역주의적 접근을 통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이를 넘어서는 하나의 지역성(regionness)을 제고해 볼 수 있는 ‘메가아시아적 접근’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중국, 일본에 비해 동아시아 지역과 연결에 필요한 역량, 인식, 역사적 경험이 부족한 한국은,<sup>5</sup>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 과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적인 인식과 사고를 구축·심화할 도전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현재적 조건이 기존 강대국 중심의 질서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기반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에 착목하여 한국의 역할을 탐색하면서, ‘외부자면서 내부자이기도 한 미국’과 ‘위협적인 내부자로 부상 중인 중국’ 사이에서 한국과 동남아시아가 마주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점진적, 진화적, 합의적인 아세안 방식이 한국 및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이 만나는 기반을 제공하

<sup>5</sup>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중국, 일본 간에는 현실적인 국가 역량 및 규모뿐만 아니라 역사적 경험 측면에서도 많은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특히, 적어도 현재까지는,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 간 역사적 교류와 경험, 인식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는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이 다른 지역과도 맞물릴 수 있는 네트워크적인 방식을 적극 탐색한다.

## II. ‘지역’으로서 ‘동아시아’: 동아시아의 지역화와 지역 개념의 적용 가능성

### 1. 중층적인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 빠른 지역화와 지역상(地域像)<sup>6</sup>의 중층성

기존 많은 연구들이 지역(Region)에 대해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지역인가”란 질문은 언제나 문제적이었다. 지역을 지리적 인접성을 특징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지리적 실체(entity)로 정의하는 고전적 지리학과 달리, 지역은 고유한 특성, 본질, 배타성, 물적 조건을 강조하는 본질주의 시각과 다양한 행위자들의 권력 관계, 갈등과 투쟁의 과정, 사회적 구성, 담론적 실천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시각으로 나뉘기도 한다(신범식, 2021). 이런 점에서 ‘지역’은 훨씬 유연하고 다층적으로 정의될 수 있고, 지역 범위의 유동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동아시아에만 국한된 특징도 아니다(윤여일, 2015: 229). 펨펠(Pempel)이 강조하듯, 지역은 “끊임없는 재창조와 재정의의 과정에 있는 물리적·심리적·행태적 특성들의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혼합물”로서 그 지리적 경계는 “사회적 결과를 갖는 지리학적 사실이 아니라 지리학적 형식을 갖춘 사회학적 사실”(Pempel, 2005: 4)로 보아야 하고, 결코 필연론적이고 목적론적인 사물이 되어서도, 될 필요도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은 엄밀한 의미에서 단일한 지역성과 제도적 실체를 갖춘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나, 지역 형성(Building regions)이란 측면에서 실체를 갖춘 지역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 또한 다층적으로, 복합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동아시아란 단지 지역 범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탈냉전을 거쳐 복원된 ‘지역지평’이자, 미

<sup>6</sup> ‘지역상’은 지역에 대한 인식과 상상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사용한다.

국을 위시한 강대국들의 지역전략이 관통하는 ‘지역질서’의 단위이자, 역내 국가 간 협력을 도출해 내기 위한 ‘지역구상’의 외연이자, 역내 식민주의와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공존과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연대’의 장이란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상은 입체화되어 왔다(윤여일, 2015: 226-227).

사실 동아시아라는 지역명과 지역범위는 동아시아 스스로의 주체적인 자기 규정이라기보다는, 타자적이고 외생적인 산물이자, 역내 단위의 역학관계에 따라 유동하는 산물이었음은 이미 널리 알려져 왔다. 넓게 본다면, 서구/서양의 발명과 대비하여 서구 또는 아시아에서 발명·발견된 타자적 개념(들)이자 침략·피침략, 서양과의 유착과 대항이란 전략적 기획으로서의 개념, 냉전체제 성립 이후 새롭게 등장하면서 다양한 표상들이 경합하는 외생적 개념이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의 일본의 동양, 동아 개념, 중국의 동방 개념은 바로 서구와 대비한 자기인식의 산물이었고, 냉전 체제성립 이후에도 미국이 구획한 지역 범위,<sup>7</sup>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제2전선, 근대화에 뒤쳐진 유라시아의 변방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탈냉전 시대의 개막과 빠른 세계화 속에서 유럽 및 미국 등 지역주의의 등장에 대응하고 진영을 넘어선 역내 교류·협력과 자율성이 증대되면서 ‘동아시아’를 둘러싼 지역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도되기 시작했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동의 대응을 통해 ‘동아시아’란 지역상을 초보적으로 마련하기도 했지만 이후 통합되지 않는 동북아시아와 통합을 높여 가는 동남아시아로 분기되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1999년 캄보디아의 가입을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 10개국이 아세안(ASEAN)이란 지역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지역통합의 수위를 높여 간 데 반해, 동북아시아 지역은 경제적 상호작용의 급속한 증대에도 정치적·안보적 협력으로 연결되지 않고 경쟁과 갈등적 관계가 동시에 증대하는 ‘(동)아시아 패러독스((East) Asian Paradox)’(Manning, 1993; Webster, 2007)에 빠진 채 지역통합의 길은 요원했던 것이 사실이다.

<sup>7</sup> 특히, ‘동아시아’란 단어는 냉전체제 성립 후 미국의 정치적·학술적 구획의 필요에 따라 극동(Far East)에서 분식되어 왔다. 자세한 것은 윤여일(2015: 233-234)을 참조할 것.

표 1 아세안의 주요 교역국 현황(2018~2019)

(단위: 억 달러, %)

순위	국가	2018			2019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	세계	28,255 (10.1)	14,026 (7.8)	14,229 (12.6)	26,755 (-5.3)	13,475 (-3.9)	13,279 (-6.7)
1	역내	6,346 (10.3)	3,337 (9.7)	3,009 (10.9)	6,045 (-4.7)	3,271 (-2.0)	2,774 (-7.8)
2	중국	4,910 (11.8)	1,977 (6.3)	2,934 (15.9)	4,650 (-5.3)	1,844 (-6.7)	2,806 (-4.3)
3	미국	2,670 (13.8)	1,594 (11.6)	1,077 (17.1)	2,738 (2.6)	1,661 (4.2)	1,078 (0.1)
4	EU	2,632 (14.9)	1,406 (9.2)	1,226 (22.2)	2,326 (-11.6)	1,272 (-9.5)	1,054 (-14.0)
5	일본	2,399 (10.5)	1,158 (10.4)	1,242 (10.6)	2,194 (-8.6)	1,046 (-9.6)	1,148 (-7.6)
6	한국	1,591 (4.7)	584 (6.2)	1,007 (3.8)	1,515 (-4.8)	548 (-6.2)	967 (-3.9)
7	대만	951 (0.1)	302 (-6.7)	650 (3.6)	1,109 (16.6)	372 (23.4)	736 (13.4)
8	홍콩	1,136 (7.4)	957 (8.3)	179 (2.8)	1,079 (-5.0)	902 (-5.7)	177 (-0.9)
9	인도	803 (9.1)	493 (8.7)	310 (9.9)	749 (-6.7)	469 (-5.0)	280 (-9.5)
10	호주	649 (10.1)	376 (9.0)	272 (11.7)	585 (-9.8)	349 (-7.3)	236 (-13.2)

출처: 한국무역협회(K-stat) IMF세계통계.

주: '역내'는 아세안 역내 교역 합산 수치임. 순위는 최신연도 교역액 기준,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최근 다시 한 번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연결성 및 경제적 통합의 증대는 동북아, 동남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이란 상상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세안은 전체적으로 역내 교역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중국(2위), 일본(5위), 한국(6위), 대만(7위), 홍콩(8위) 등 동북아 국가와의 교역까지 포함할 경우 동아시아 역내 교류는 61.3%(2018)와 62%(2019)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표 2 대(對)아세안 외국인 방문객 국적 현황

(단위: 천 명, %)

방문객 국적	2017		2018		2019	
	국적별 방문객 수	비중 (%)	국적별 방문객 수	비중 (%)	국적별 방문객 수	비중 (%)
전체 외국인	125,721	100.0	135,170	100.0	143,487	100.0
아세안	48,493	38.6	49,599	36.7	51,571	35.9
싱가포르	15,639	12.4	14,079	10.4	13,796	9.6
말레이시아	7,714	6.1	8,798	6.5	9,473	6.6
인도네시아	6,800	5.4	7,913	5.9	8,407	5.9
태국	6,580	5.2	7,031	5.2	7,678	5.4
베트남	3,622	2.9	3,849	2.8	4,094	2.9
라오스	2,385	1.9	2,254	1.7	2,343	1.6
필리핀	2,081	1.7	2,118	1.6	2,356	1.6
브루나이	1,787	1.4	1,508	1.1	1,334	0.9
캄보디아	1,215	1.0	1,379	1.0	1,289	0.9
미얀마	669	0.5	670	0.5	687	0.5
중국	25,285	20.1	29,117	21.5	32,280	22.5
EU	10,862	8.6	11,232	8.3	11,348	7.9
한국	7,862	6.3	9,031	6.7	10,461	7.3
일본	5,028	4.0	5,229	3.9	5,655	3.9
인도	4,153	3.3	4,672	3.5	5,320	3.7
미국	4,109	3.3	4,498	3.3	4,817	3.4
호주	4,343	3.5	4,413	3.3	4,521	3.2
타이완	2,582	2.1	2,833	2.1	3,245	2.3
러시아	2,301	1.8	2,472	1.8	2,558	1.8
홍콩	1,560	1.2	1,782	1.3	1,762	1.2
기타	9,142	7.3	10,292	7.6	9,950	6.9

출처: 아세안 사무국(ASEAN Secretariat).

주: 비중은 전체 외국인 중 방문객 국적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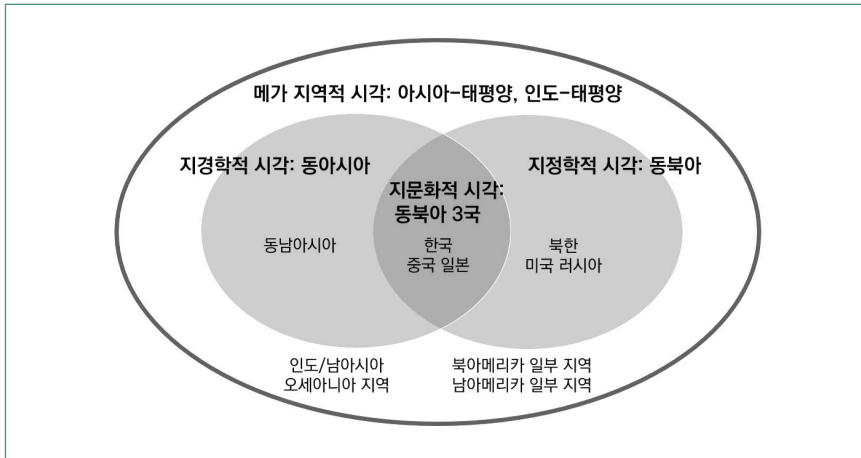
더욱이, 인적 교류의 측면에서 보자면, 아세안을 방문한 외국인은 동남아시아 역내가 40% 내외를 차지하고,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를 포함한다면 그 비중은 70% 전후로 올라간다. 경제적 교류가 사회문화적 교류를

촉진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비춰 볼 때, 경제적 교류·협력의 확대와 동반한 인적 및 사회문화적 교류를 동아시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라는 지역명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타지역을 상회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빠른 경제성장, 즉 경제적 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을 배경으로 한다. 일찍이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네 마리 호랑이’에 이어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개별 국가만의 성장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부상’(Cumings, 1984; So and Chiu, 1995)이란 점에서 다른 지역과는 종별적인 (경제)발전의 경로를 밟아 왔다. 더욱이, 동북아시아 지역이 세계 주요 경제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탈냉전기 베트남 등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경제개발과 대외개방에 나서면서, 동아시아 지역 내 글로벌 생산기반이 확장되고 역내 투자제공자와 무역파트너로서 상호관계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어찌 보면 동아시아인에 의한 재아시아화는 역설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가 세계화되면서 가능했다고도 할 수 있다.

상호 연계되기 시작한 동아시아는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체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역내무역집중도를 높여 갔다. 역내무역집중도는 지역경제의 통합정도를 평가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데, 2000년대 초반 이래 높은 수준의 동아시아 역내무역집중도를 보이면서도 국가별 편차가 크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높은 통합정도를 보여 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간의 상호적인 무역관계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의 수요 및 필요가 제고되었던 점이다.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모두 개별 역내의 무역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동북아국가들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동남아 국가들은 동북아국가들에게 중요한 교역상대국임을 보여 준다. 결국, 기존 지역의 구획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상상해 볼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다.

확실히 한국 학계 내에서도 동북아중심적 시각의 교정은 이미 2000년대 초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황인원, 2007; 신윤환, 2009). 시장경제의 발전이 동북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확산되고, 냉전체제의 해체와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 등으로 역동적 정치변동과 가속적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동북아와 동남아를 뚜렷하게 구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박사명, 2008: 14). 하지만, 빠른 지



출처: 윤여일(2015: 274)의 그림을 본 글에 맞게 저자가 수정·보완.

**그림 1** 중층적인 동아시아 지역상

역화의 추세가 학술적 시각을 동남아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인식과 실천, 나아가 동남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현실적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던 데에는, 중층적인 동아시아 지역상 또한 크게 기인했다.

‘동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상은 그림 1처럼 중층적이면서도 경합적이다. 윤여일(2015: 273-275)은 한국 내에서 동아시아의 외연에 관해 세 가지 접근법이 존재해 왔음을 밝힌다. 현재적 수준에서 좀 더 수정 보완해 본다면, 아시아-태평양, 인도-태평양 등 메가-지역적 시각,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괄하여 동아시아의 외연을 확대하는 지경학적 시각, 6자회담을 대표로 하는 동북아 중심의 지정학적 시각, 유교문화권에 기반한 한중일 3국의 지문화적 시각 등이다. 더구나, 각각의 시각은 주요 국가의 정치적 기획과 이해와 긴밀한 연관을 짓는다는 점에서 경합적이고, 그에 따라서 동아시아를 포괄하는 지역 범위는 작게는 한중일 3국에서부터, 크게는 아시아태평양 전반까지 다양하게 상상되고 동원되어 왔다.

여기서는 크게 다음의 쟁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동북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상이 결코 동아시아라는 지역상의 하위 범주가 아니란 점이다.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미국이 동북아에는 속하지만, 동아시아에

는 빠져 있다. 지정학적 시각에서 동아시아가 아세안+3(ASEAN+3)으로 대표되는, 즉 동남아시아와 한중일 삼국 중심의 동북아시아를 포괄한다면, 지정학적 시각에서의 동북아시아는 북한, 미국, 러시아 등을 포괄한다. 더욱이, 한국 정부 및 학계가 한반도 문제 또는 분단(체제)에 관심을 쏟을수록, 한반도 중심성이 강조되고 동남아시아로의 외연확대는 저해되었던 측면도 존재한다.<sup>8</sup>

## 2. 한국발 ‘지역형성’의 두 가지 길: 동북아시아 길의 ‘상대적 실패’와 동아시아의 길

현재 동아시아 지역은 하나의 지역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지역형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 최근에 와서는 동아시아를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 포괄하는 보다 광역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박승우, 2011). 일반적으로 ‘지역’이란 소속감, 동질성 및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역사적 과정과 실천을 통하여 형성된 ‘운명공동체’와 같은 존재로 이해된다. 지역의 형성은 크게 ‘담론적 실천’에 의해 인식이 확산 공유되는 과정과 더불어 그것을 구성해 나가는 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제도화’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신범식, 2021). 지역 형성을 위한 담론적 실천과 제도적 실천 두 가지는 상호작용하고 있지만, 전자가 일방적으로 후자를 이끌거나 후자가 전자를 일방적으로 이끌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는 담론적 실천과 제도적 실천이 동시에 고도화되는 과정일 것이지만, 양자가 이분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형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의 지역성(regionness)은 유럽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해된다. 비(非)지역과 구분되는 지역으로서의 자격을 묻는 지역격(regionhood)<sup>9</sup>과 다른 지역과의 구분을 의미하는 지역특성(regionality),<sup>10</sup> 지역의 응집성을 설명하는 지역성(regionness) 개념은, 담론적 실천에 주목하여 ‘지역이

<sup>8</sup> 물론 한반도 중심성과 동남아시아로의 외연확대가 양립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양자를 연결하고 연동하는 정치적 기획 또는 학술적 상상의 부족일 수도 있다.

<sup>9</sup> 정확한 번역어는 지역격, 지역다움, 지역신분 등 더욱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신범식(2021)의 논의에 따라 ‘지역격’으로 서술한다.

<sup>10</sup> 인격적 속성(personhood)을 간직한 개성(personality)과 유비된다.

표 3 지역성(regionness)과 지역격(regionhood)의 개념 비교

개념	구성요소	설명
지역성 (regionness)	1단계 regional social space	지역적 공간, 원형적 지역으로 다소 자연적인 경계, 생태학적 특징에 의해 구획된 공간
	2단계 regional social system	regionalization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과정으로서 이전에 소원했던 집단들끼리 사회적 계약이나 무역, 거래 등이 발생. 서로 상호의존성이 높아짐
	3단계 regional international society	시장, 초국가적인 기업 등 국가적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하지만 규칙에 기반 한, 국가와는 다른 행위자의 출현
	4단계 regional community	적극적인 주체로서 지역적 집합적 정체성과 제도화된 또는 비공식적 행위자, 'formal' region과 'real' region 사이
	5단계 regional institutionalized polity('region-state')	지역적으로 완벽히 제도화된 실체, 국민주권국가의 권한이 지역적 실체로 완전히 진화된 실체
지역격 (regionhood)	system of intentional acts	목적성을 갖고 행위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지역
	'rational' system with statehood properties	목적합리성뿐만 아니라 도구적 합리성 등 합리적 시스템에 의해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
	reciprocal achievement	다양한 복합적 주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지역이기에 상호작용하여 그 성취를 이룸
	generator and communicator of meaning and identity	지역적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소통자로서 발생자로서 역할

출처: Langenhove(2011: 80-86). 지역성은 Hettne and Soderbaum(2000)을 Langenhove가 정리한 바를 재정리.

되어지는 과정(the process of 'becoming' a region)'을 제시한다(Langenhove, 2011: 63-96). 지역성 개념은 하나의 물리적 실체의 공간이 사회적 구성물로 만들어지는 단계를 제시하는데, 즉 지역이 하나의 지역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regionness) 획득된 지역격(regionhood)을 발휘하는 지역개성(regionality)을 갖춘 단위가 되는 것을 '지역'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지역성은 표 4와 같이 간략

표 4 지역성 비교: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개념	구성요소	동북아	동남아
지역성 (regionness)	[1단계] 지역 사회공간	○	○
	[2단계] 지역 사회체계	○	○
	[3단계] 지역 국제사회	○	○
	[4단계] 지역 공동체	×	△ (진행 중)
	[5단계] 지역의 제도화된 정치체('지역-국가')	×	×

출처: 표 3의 내용에 맞춰 저자들이 판단하여 정리.

히 정리해 볼 수 있다.<sup>11</sup> 지역성 개념이 기존의 일차원적이고 정적인 지역 개념을 넘어서서 유연한 정의를 제시하고 발전·진화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도 매우 흥미롭다. 하지만, 지역성 개념이 하나의 지역은 하나의 지역성을 갖는다고 전제하는데 반해, 지역격 개념은 동일한 여러 다른 형태의 지역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지역형성 과정과 향후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지역형성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다.

아세안을 설립하고 지역형성의 단계를 고도화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비해, 동북아시아 지역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지역성'의 차원에서 상당히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각 국가가 갖는 지역상은 자국 중심적이기 마련이지만, 한국 내 동아시아 담론이 한반도 중심적인 특징을 갖는 것은 특히 '동북아시아' 중심의 지역상으로 드러난다. 아세안+3을 비롯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격을 활용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비해, 한국 주도의 '동북아시아'론은 지정학적 차원에서 한반도/분단 문제 해결이란 점에 천착해 왔다.

하지만, 한국 또한 동북아시아로 한정되지 않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동아시아 경제발전이나 높은 역내무역집중도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와 그에 대한 집단적 대응의 필요가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실질적으로 가속화했다. 탈냉전 이후 첫 번째 계기로,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동아시아 스스로의 눈과 힘으로 동아시아를

<sup>11</sup> 표 4는 동북아시아와의 비교를 위해 간략히 작성된 바이다. 하지만, ASEAN에 대한 평가는 다소 논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구성해 보려는 시도들은 동아시아 전반에서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세계화와 탈냉전의 시기,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은 유교자본주의론을 넘어 '아시아적 가치'론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세계적인 지역블록화 추세에 대한 대응은 동아시아의 지역화 및 지역주의 전략을 강화하며 동아시아경제지역그룹(EAEG),<sup>12</sup>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 설립 등의 성과로 드러나기도 했다. 비록 마하티르의 제안이 그대로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아세안과 한중일을 포함한 13개국이라는 지역 범위는 이후에도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기반으로 작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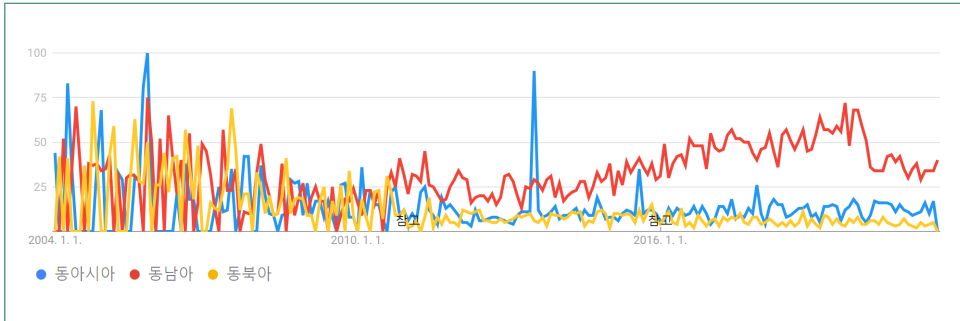
1997년은 동아시아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기였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과정에서 ASEM 등 국제협력체나 미국 등이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동아시아의 협력은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당시 한국 또한 동아시아의 지역상이 동남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내내 동북아와 동남아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구상과 정책을 이어 갔고,<sup>13</sup> 동아시아비전그룹(EAVG)을 제안하여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하여: 평화·번영·진보의 지역”이란 보고서가 2001년에 제출되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아시아 경제협력, 동북아 다자주의가 추진되면서, 지정학적 측면에서 ASEAN+3라는 수준으로 동아시아가, 지정학적 측면에서 6자회담의 틀로 동북아시아가 서로 포개지고 차별적으로 거론되는 양상이 정착된다.

하지만 이후 활발해졌던 한국 내 동아시아 담론과 정책이 그림 2에서 보듯 동남아에 대한 관심의 지속 증대에도 불구하고 왜 동아시아 지역의 길로 지속되지 못했을까? 이에 대한 질문은 보다 세부적·종합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세 가지 점에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한다.

우선, 현실적인 수준의 문제다. 2005년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지역협력

<sup>12</sup>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1990년에 처음으로 제안했다.

<sup>13</sup>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베트남 방문 및 아세안 정상회담 참석 귀국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제 과거에 있던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간의 어떤 차별도 더 이상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만 해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동아시아 전체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입니다.”(김대중, 1999: 690)



출처: 구글트렌드<sup>14</sup>

그림 2 '구글 트렌드' 국내 이용자의 검색어 추이(2004~현재): 동아시아, 동남아, 동북아

의 제도화 수준을 제고하는 상징적인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타협 수준에 머무르면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공유해 온 공동의 위기의식에 기반한 협력분위기를 생각시키고 말았다.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구상의 차이는 지역 범위와 가맹회원국의 수준에서 대립을 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되면서 외연이 APEC과 중첩되었고 APEC처럼 낮은 수준의 협의체에 머무를 공산이 커져 동아시아공동체 건설논의에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아세안+3과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병존하고 중국과 일본의 선호형태가 갈리자, 아세안 내부에서도 협력체의 선호가 갈리는 등 대결구도 드러났다.

다음으로, '동북아시아'란 지역형성의 가능성 문제다. 지문화적 차원에서 다소 동질적인 문화권이자 지경학적 차원에서 경제교류·협력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란 지역명은 중국과 일본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한국만의 용법이기도 했다.<sup>15</sup> "동북아시아/Northeast Asia"란 용법은 미국에서 정책·학술적으로 쓰인 이래, 한국 내에서 유독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중국은 동아시아 의식이 부족하단 학술계 차원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존재해 왔지만(양후이, 2003; 쉰

<sup>14</sup> 구글트렌드 검색: 동아시아, 동남아, 동북아(검색일: 2021. 7. 4.). <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date=all&geo=KR&q=%EB%8F%99%EC%95%84%EC%8B%9C%EC%95%84,%EB%8F%99%EB%82%A8%EC%95%84,%EB%8F%99%EB%B6%81%EC%95%84>.

<sup>15</sup> 구글트렌드에서 검색할 경우, 국제 활용빈도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다음이 미국, 인도 순이며, 다른 국가의 경우 거의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거, 2013), 특히 1997년 위기를 전후하여 중국 정부의 주변국 외교는 다자주의와 지역통합 등 지역주의 차원에서 동아시아에서도 많은 진전을 보여 왔다(서정경·원동욱, 2009). 하지만 중국에게 동북아시아란 관념과 실천은 6자회담의 필요성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주변국 외교에 비해 한국만큼 절대적인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일본의 경우 동아시아에 대한 상상은 탈냉전기 급기에서 풀려나 활발히 제기되었고 한국지식계와 지적 교류 또한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태평양 국가이자 동아시아 국가라는 이중적 정체성 차원에서 '동아시아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미일 관계를 기축으로 한 태평양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능가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 결과, 일본은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확대 아시아', 나아가 아시아의 해양세력과 대륙의 외곽 지역을 결집하고자 하는 거대한 전략적 차원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적 차원에서는 동북아 담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하기에 동아시아 담론의 외연 확대를 제한하기도 했다. 기존 '동아시아 담론'이 동아시아를 욕망하면서도 내재적인 한국/한반도 중심성(또는 '특권화')의 논리로 한국 지식계에만 통용되는 내수용 담론, 특히 '동북아' 중심적 담론으로 이어져 오며 한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전선", "십자로", "중추지역" 등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기술하는 주요 수사들은 한국의 역할 내지 거점론, 매력국가로서의 성격을 강조해 왔다(윤여일, 2015).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동북아/한반도에 대한 관심 및 국가역량의 비대칭성, 동아시아 내 다른 국가의 수용 및 소통가능성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적이다. 근대 민족국가의 과제인 분단 극복과 한반도 평화를 통한 동(북)아시아에의 기여에 대한 강조는 현실적 필요/역할과 대안체제로서의 성격을 제기하지만, 과연 한국발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담론이 한국의 실상에 근거하되 인접국 지식계와 공유할만한 동아시아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 즉 동아시아화될 수 있는가란 질문을 남겨 둔다.

### III.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접근에 대한 시론적 검토: 메가 아시아적 접근의 가능성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신북방정책, 한반도신경제지도과 연계한 새로운 지역 전략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던 동남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 전략으로, 다시 한 번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현재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동아시아’는 결코 과거의 ‘동북아시아’란 좁은 틀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데다, 지경학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지역 전반으로의 확산과 경제적 교류와 상호 의존의 확대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더욱이 일상의 생활세계에서 지역 내 인적·문화적 교류의 확대와 이동의 일상화를 통해 동아시아는 결코 동북아시아에 국한되지 않는 하나의 사회적 사실이 자, 현실이 되고 있다(박승우, 2011: 91-92).

지역성(regionness) 관점에서 보면, 동남아시아가 진화적·점진적·합의적인 아세안 방식으로 지역성을 고도화해 온 역사가 있는 반면,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지역’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이다. 지역성의 마지막 단계까지 고도화한 유럽연합과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지역성은 점진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성의 두 번째 단계인 지역복합체(regional complex)의 출현가능성이 커졌고, 다차원적으로 진행 중인 지역화의 결과로 지역 국제사회(regional international society)의 특징도 점차 출현하고 있다. 즉, 지역 조직으로서 제도화가 이뤄진 공식지역(formal region)과 사실상의 지역화가 진행되는 ‘현실지역(real region)’이 혼재되고,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들이 관여하며, 통합을 지향하는 거시지역 속에 비국가행위자들의 초국가(transnational)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다양한 미시지역이 공존한다(Mittleman, 1996; 이철호, 2012: 102-103).

최근 빠른 지역화와 지역형성의 과정에서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를 동아시아인의 주체적 관점에서 사고할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탈냉전, 세계화라는 외적 계기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주권확립이라는 내적 계기가 결부되면서, ‘역사의 시작’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장인성, 2017: 527-528). 공동체

를 향한 지역 프로젝트의 중심분야는 물질, 상징, 제도로 압축되지만 실제 과정은 더 다양한 분야와 주체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사회적 상호작용(Schmitt-Egner, 2002)임은 동아시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연대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내 갈등 또한 이상(異常)이 아니라 정상(正常)이란 관점이 필요하다. 장인성(2017: 476)은, 냉전체제에 형성된 관습이 아니라 동아시아 차원의 새로운 관습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필요를 제기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지역'의 새로운 존재 양태를 일깨우는 계기를 제공한다(장인성, 2017: 505-506).

이번 장은 최근 아시아 내 다양한 지역들이 형성되고 서로 관계를 맺는 새로운 양상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고 단수로서의 메가아시아와 복수로서의 아시아들을 개념적이며 현상적으로 규명하는 메가아시아적 접근이 아시아들의 한 구성단위인 '동아시아'에서 갖는 함의와 과제를 살펴본다. 특히, '중국의 G2로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로의 귀환' 등을 배경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 등 거대 세계전략들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를 투사하며 전 지구적 동학 속에서 지역적 동학을 연결하려는 시도들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다양한 층위에서 강화되고 있는 지역주의적 협력과 실천들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 하위의 초국경 소지역들, 국가 상위의 범아시아적인 연결망과 인프라를 통해 더욱 가속화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 또한 '동아시아'란 지리적 범주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인식과 상상, 담론적·제도적 실천이 요구된다. 외부적인 규정과 주체적인 대응 사이에서 '동아시아'를 고정적 실체로 보지 않고 자기성찰과정에서 유통하는 것으로 파악하려는 사고와 이에 기초한 실천, 동아시아 정체성을 모색하는 주체적인 지적 실험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동남아시아의 아세안 방식을 일별하고 메가아시아적 접근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 1. 아세안 방식: 점진적·진화적·합의적 성격의 지역성 고도화 전략과 개방적 지역주의

한국발 동북아로의 길이 현재까지 실패한 반면, 동남아시아 사회의 혼종성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아세안(ASEAN)이란 지역통합기구로 지역적 실천을 벌이는 방식은 한국 내 동아시아 담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최근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고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안보측면까지 확장하고자 하지만, 기존 동아시아 담론 내에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은 존재해 왔다. 특히, 성찰적 차원에서 동남아와 연결된 동아시아상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신윤환(2008: 386-391)은 동남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지역상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즉, 중국처럼 우월적인 문화의식 또는 한국·일본처럼 획일적인 단일문화에 간혀 살아온 동북아인들이 다원주의적 태도를 함양하고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상대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동남아인들은 수백 가지 언어와 종족이 공존하는 다원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로 다른 종족들이 모여 새로운 국가와 민족을 건설했고, 또한 이질적인 국가와 국민들이 결집해 아세안이란 지역기구를 창설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발 동아시아 담론은 동남아를 포함한 동아시아로 지역 범위를 확대함을 좌고우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실천과제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실천은 부족했다. 동북아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강대국들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경고(신윤환, 2004; 이근, 2006)가 현실적 필요를 제기한다면, 동남아에 대한 동북아의 우월주의 또는 경제적 이해방식 중심의 접근은 과연 한국이 다른 패권주의 국가와 무엇이 다른 지에 대한 성찰적 차원의 질문을 제기하는 바도 있다.

사실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지역/국가 수준에서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비대칭적이다. 동남아시아는 아시아 지역 내 총면적, 총인구 수, 경제규모 등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동북아시아 지역과의 격차는 상당하다.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데 반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경제수준, 정치체제, 문화/종교 등에서 다양성과 혼종성을 보이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에, 지역통합의 수준은 동남아시아 지역이 더욱 높은 편이고 동아시아 역내 협력과 통합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놀라울 만한 일이기도 하다.

최근 아시아 여러 지역의 변화 속에서 '아시아'들이 하나의 지역으로서 지역격을 획득하는 수준을 넘어 그 지역성을 고도화해 가는 양상 속에서 동남아시아의 경험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가 아세안을 발전시켜 오며 축적한 지역주의의 경험은 비록 “말은 크지만 실제 행동은 적고(big on words, but small on action)”, “토크숍(talk shop)”이라 비난받아 온 바도 있었다. 한 분석에 따르면, ASEAN은 매년 600개 이상의 회의를 갖지만, 실제 집행되는 바는 ASEAN 협정의 50%도 안 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sup>1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상징하는 아세안+3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ASEAN을 공고히 이루지 못했다면 구상하기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운명공동체’로서의 ‘지역’개념을 아시아에 적용해 본다고 했을 때, 동남아 국가들은 1967년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Nations, ASEAN)을 출범시켰고, 2015년 12월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로 조직의 성격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오는 과정에서 지역으로서의 “담론적 실천”과 “제도화”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성을 고도화해 왔다. 특히, 아세안 방식은 국가 주권 존중과 상호 내정 불간섭, 비공식적 외교, 회원국 간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 금지, 조정 및 합의(만장일치제)에 의한 정책 결정 등으로 구성된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동남아시아 상상하기(imagining Southeast Asia)”를 대표적으로, 혼종성과 다양성을 지닌 지역이 어떻게 “상상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환되어 왔는지에 대한 주요한 사례다. 근대 식민 이전 시기 동남아의 대륙부와 해양부 전통왕조의 특징은 월터스(O. W. Wolter)의 만달라(mandala) 개념, 타비아(S. J. Tabiah)의 은하계 정치(galactic polity), 기어츠(C. Geertz)의 극장국가(theatre state) 등으로 설명되면서 지역성을 설명해 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재발명(Reinventing)’은 신생독립국가 기반의 국가 간 체계에 기초하여 이뤄졌다(Acharya, 2000). 사실, 지리적 개념으로 동남아시아는 이미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지만(윤진표, 2020),<sup>17</sup>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란 명칭은 2차

<sup>16</sup> John McLean, “Will ASEAN’s New Charter Bring Greater Cooperation?,” *Development Asia* 2011. 7. 6. <https://web.archive.org/web/20110706085143/http://development.asia/issue03/cover-03.asp>(검색일: 2021. 6. 15.).

<sup>17</sup> 중국인들은 이 지역을 ‘난양(南洋, Nanyang)’ 또는 ‘남포(Nampo)’로, 인도인들은 ‘수바르나부

대전 시기 영국군과 미군 연합군의 군사적 용어로서 처음 등장한 바 있었다.<sup>18</sup>

동남아시아 지역이 자신의 힘과 눈으로 스스로의 지역력을 획득하고 지역성을 고도화한 바는, 탈식민과정에서의 역사적 경험과 개별 국가 차원의 부족한 역량에 힘입은 바 컸다. 즉, 현대 동남아시아 지역을 탄생시킨 가장 큰 동력은 식민지 시기의 경험을 극복하고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고,<sup>19</sup>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도 세계 및 지역적 정치작동 속에서 개별국가 차원에서 정치경제적 문제들을 순조롭게 풀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협력의 방식을 강구해 왔다.<sup>20</sup> 그러한 제도적 결과가 바로 1967년 아세안<sup>21</sup>의 탄생이었다.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은 ‘독립국가’로의 전환에 장시간이 걸렸고, 식민지 시절처럼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그러한 지역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면서 평화로운 지역을 만들자는 기본적인 합의가 존재했다.

아세안의 출범을 알리는 방콕선언에는 지역의 연대와 협력(regional solidarity and cooperation)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이익에 기초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등성과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지역협력을 증진하며, 지역의 ‘평화, 진보, 번영’을 추구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상호의존적인 세계를 지향하며, 평화·자유·사회적 정의, 경제적 웰빙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호이해, 좋은 이웃, 역사적 문화적 존중을 강조하고 있으며, 평화롭고 진보적인 국가발전을 서로 돕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증진하고, 국가적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Survanabhumi, 황금의 땅)로 아랍인들은 ‘바람 아래의 땅’으로 불러 왔다(윤진표, 2020).

<sup>18</sup>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란 명칭은 1943년 태평양전쟁이 한창일 때 스리랑카에 영국군과 미군 연합군의 동남아시아사령부(South-East Asian Command)가 설치된 이후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sup>19</sup> 각 국가마다 식민지 시기부터 독립운동세력이 탄생하고, 민족주의가 고취되었다.

<sup>20</sup> 인도네시아도 일본으로부터 1945년에 독립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네덜란드와 전쟁을 치르면서 1949년에서야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말레이시아도 1957년 독립하였으나, 동말레이시아까지를 포괄하는 데는 1963년에서야 독립이 완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되었다. 브루나이는 1984년, 필리핀 1946년, 미얀마 1948년, 라오스 1954년, 캄보디아 1953년, 베트남은 1945년 독립을 선포하였지만 1975년에서야 통일된 베트남으로서 독립국가의 길을 가게 되었다.

<sup>21</sup> 아세안은 1967년 인도네시아 외교부장관 아담 말릭(Adam Malik), 싱가포르 외교부장관 라자 라트남(R. Rajaratnam), 말레이시아 외교부장관 라작(Tuh Abduh Razak), 태국 외교부장관 코만(Thanat Khoman), 필리핀 외교부장관 라모스(Narciso Ramos)가 방콕선언(Bangkok Declaration)에 서명하면서 시작된 지역협력체다.

어떤 형태의 외부세력으로부터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 방콕선언은 그로부터 아세안의 지역형성의 사상적 기초로 작동한다. 첫째, 3P(평화, 번영, 진보)의 기원이다. 평화, 번영, 진보의 각각의 정신은 현재 정치안보,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공동체로 이어져 오고 있다. 둘째, 주권국가들의 상호존중과 주권의 동등성 정신이다. 이것을 결코 동남아 내에 이는 국가들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정신의 표현으로 등장하였다. 셋째, 아세안이라는 지역협력체가 개별 국가의 정치적 안정, 경제적 번영 그리고 사회적 진보를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정신의 표현이다. 아세안 지역주의의 기원이다. 1967년 아세안 출범 시 회원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다섯 국가였고, 1985년 브루나이 가입과 탈냉전 이후 1995년 베트남 가입,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가입, 1999년 캄보디아가 가입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로 회원국이 확대되었다. 물론 동남아시아에 남아 있는 동티모르 국가가 아직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ASEAN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 역내 국가 간 협력과 역외 국가 간 협력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ASEAN을 기존 느슨한 지역협력체에서 법적 실체로서의 지역협력체를 지향하면서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로의 전환을 시도했고,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전환의 노력으로 2015년 말에 아세안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아세안의 동아시아 인식 또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이 처음 만나 아세안+3(APT)을 수립했고, 1999년 '동아시아 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 I, EAVG)', 2001년 EAVG I 논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국가들의 지역협력과 지역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유추되면서 동아시아의 지역성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2005년 출범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이하 EAS)'가 회원국 범위를 동아시아를 넘어 갖게 되면서,<sup>22</sup> 단순한 지리적 범위가 아닌 매우 지정학적 범주로서의 '지역적'

<sup>22</sup> 회원국 범위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은 물론 뉴질랜드, 호주, 인도, 미국, 러시아 등 총 18개

을 획득하기도 했다.<sup>23</sup>

아세안의 지역상은 한국 및 동북아발 동아시아 지역상과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바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와 관련된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주요한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즉, APT뿐만 아니라 아세안+6 정상회의의 체제인 EAS의 출범은, 각국의 이해관계의 상충되는 바를 드러내는 동시에,<sup>24</sup> 중국의 부상에 대한 역내외 국가들의 우려 또한 반영된 바이기도 했다(배궁찬, 2014).<sup>25</sup> 결국 아세안이 동아시아에서 갖는 상호 대화의 플랫폼으로서의 성격은, 복잡한 파워게임의 지역 구도 속에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관철시키고자 한 노력의 결과였다.<sup>26</sup> 결과적으로, 다양한 강대국과 중진국, 약소국이 존재하는 외교공간에서 이슈에 따라 타협과 협상이 가능한 지역적 외교공간을 만든 것으로, 역외의 특정 패권국가에 좌우되지 않으면서도 지역 내외의 다수 국가들이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동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아세안 방식을 그대로 추종하자거나 복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특히, 아세안공동체로의 확대 발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얀마 사태에 대한 아세안의 불개입은 내정불간섭 원칙의 시대착오적 모순을 보여 주기도 한다. 아세안이 ‘발전적 방향’으로의 공동체 전환을 위해 ‘건설적 개입(Constructive Engagement)’ 개념을 구체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세안 방식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세안 방식의 성과를 보다

로 확대되었다.

<sup>23</sup>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2000년대 중반 당시에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또는 ‘아시아-태평양’ 개념이 포함된 차원에서의 동아시아를 상정한 것이다.

<sup>24</sup> 아세안+3 중심의 EAS 출범을 지지했던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견해와 아세안+6 중심의 EAS를 주장했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사이에서 후자의 승리라고 설명한다(배궁찬, 2014).

<sup>25</sup> 기존 아세안+3 국가들 중심의 EAS가 출범할 경우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주도할 가능성을 우려했던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였다(배궁찬, 2014: 38)

<sup>26</sup> 아세안이 주도하고자 하는 역외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특정한 패권국가에 의한 좌우되는 외교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파워게임이 존재하는 복잡한 구도를 만들고자 했던 의도로 해석된다. 즉,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가입시켰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를 했다고 해서 미국 주도의 EAS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건설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아세안 방식은 외부의 패권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역 플랫폼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한 공동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동남아의 ‘자기 조직화’ 과정이 이웃 국가들과의 상호작용을 계속 추진하면서 만들어 온 아세안+N전략의 제도화 과정은 양자 협력, 다자 협력을 망라하는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논의와, 이에 기반하여 중장기간 함께 대화할 기반이란 점에서 ‘개방적 지역주의’, 아세안 방식의 성과와 과제를 기반으로 동아시아를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해 볼 가능성을 제기한다.

## 2. ‘동아시아 지역’이란 재질문: ‘지역’을 단위로 한 메가아시아적 접근의 가능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꾸준히 추진해 온 아세안 방식은 1990년대 초반부터 유럽 북미에서 진행된 지역주의적 움직임에 자극받고 1997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지역(region)’이라는 단위를 (재)발견하는 과정이었다. 1997년 출범한 APT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제안하고 주도한 동아시아비전그룹의 보고서가 동아시아 협력의 궁극적 목표를 ‘동아시아공동체 건설’로 제시하며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동체적 인식은 비로소 현실적 가능성과 실체를 갖는 관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EAVG, 2001; 김기석, 2015).

한국발, 특히 창비 진영의 동아시아 담론은 세계와 국가의 중간인 ‘지역’에 정초하는 수직적 공간관념을 통해 한반도의 문제를 ‘자기문제화’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적·세계사적 과제로 제기하는 데는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성공한 반면, 동아시아 범위 내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소통하는 수평적 공간관념의 측면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장인성, 2017: 455-457). ‘서구의 충격’에 의한 상상력의 발현, 동(북)아시아에 치중한 공간관념, 규범적 동아시아관이 갖는 내부적 한계는, 동아시아에 만연한 국가중심적 사유 및 실천과 강대국들의 지역상과 지역주의 전략 등 외부적 한계와 결합되어 한국 내 동아시아 담론의 위기 및 동아시아공동체론의 현실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 흐름은 ‘지역’을 단위로 다양한 인식과 실천들이 작동

하는 양상들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으로 ‘중국의 G2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귀환’ 등을 배경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 등 강대국의 거대 세계전략 및 지역주의 전략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더불어 새로운 의미부여를 투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외의 교류와 연결성의 심화·확대는 서구와 냉전질서에 의해 구획되었던 ‘동아시아 지역’을 단순한 지리적 범주가 아니라 ‘네트워크화된 지역’이자 어쩌면 그 핵심장소 중 하나로서 구성하고 있다.<sup>27</sup>

양자의 흐름은 모두 ‘동아시아 지역’을 단순한 동아시아공동체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동학 속에서 지역적 동학이 구성되는 일종의 ‘세계 지역(world region)’<sup>28</sup>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담론이 동북아의 외연을 확장하여 ‘동아시아’를 상상하며 하나의 지역공동체, 지역정체성을 모색하며 내부의 억압성을 거부하고 외부로 열린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며 다양성을 포괄하는 지역성의 고도화에 주목한다면(박승우, 2011), 다시 한 번 동아시아인 스스로의 눈으로 상상하는 ‘지역’이 갖는 중층성과 공간적 범위를 되물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공동체 또한 어떤 특정의 상태라기보다, 유동적이면서 계속 변형·발전되어 가는 일종의 과정(process)이라 한다면,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다케우치 요시미, 1966(1997)), “프로젝트로서의 동아시아”(딜릭, 2000),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정문길 외, 2000), “지적 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백영서, 2000) 등이 주목했던 기존의 인식과 상상, 담론적 실천들이 갖는 ‘(동)아시아’에 대한 지적 유산을 어떻게 현재화하고 미래 비전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메가아시아적 접근은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고 아시아 내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들(regions)이 지구적 및 지역적 동학을 통해 상호연결됨으로

<sup>27</sup> ‘네트워크화된 지역’으로 아시아를 바라보는 논의는 인문, 사회과학 각 분야뿐만 아니라 학제간 연구를 통해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화된 지역’으로서의 아시아는 그만큼 풍부한 내용과 쟁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로 미뤄 두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본 특집호에서 신범식(2021)의 연구가 ‘네트워크화된 지역’으로서의 아시아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기에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를 참조할 것.

<sup>28</sup> ‘세계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근대세계체계의 변동 과정에서 핵심적인 교류의 장소였던 지중해지역이었다.

써 구성하는 거대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변동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아시아 내의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틀이자, 상이하면서도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가진, '여럿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지역'으로 발현되어 가고 있는 거대지역으로서의 아시아를, 아시아 스스로의 눈으로 발견할 필요를 전략적·학술적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메가아시아적 접근방식은 기존의 동아시아담론과 동아시아공동체론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제기되기보다는, '동아시아 지역'의 수평적 외연·내포와 역내외의 상호 관계(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등)를 통해 재구성되는 동아시아의 합의와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를 제기한다.

메가아시아적 접근은 '연동하는 동아시아' 개념과 '네트워크적 접근'을 통해서 각 지역이 상호 연결·연동되는 체계로서의 아시아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데, 기존의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 다양한 소지역단위와 하위 국가수준의 초국경 및 광역협력, 도시 및 인구네트워크 등 이동성과 연결성의 사례(손정렬 외, 2018; 신범식, 2019)를 통해 다양한 행위자가 담론적·제도적으로 실천하며 구성해 나가는 '(동)아시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풍부하게 검토해 볼 필요를 제기한다. 한국 내 지역연구의 활성화가 주로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기반한 실용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필요한 정보를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목적하에 활성화된 결과물(이지은, 2011)이었던 한계를 넘어, 개별 지역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거나 공간상에서 더 넓은 지역의 내부를 통합적·융합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연구는 더욱 요구된다(손정렬 외, 2018). 국가 간 관계로 한정되지 않는 초국가적·국가 내부적 현상들을 규명해 내고 지역 범주를 가변체로 이해하는 범위에서 관계론적 사고와 다층적 접근이 요구되며(백원담, 2010),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역 간 경계를 넘는 이동성이 증가하며 지역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법론과 접근방법이 절실히 요구된다(이창남, 2009).

동남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역내외 협력의 제고가 간지역주의적, 초지역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가 하나의 '지역'이자 다른 지역과 연동되는 '지역'으로서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연결성이 지경학적 차원에서 동남아시아로의 투자 및 경제성과라는 비대칭적 성격이 보다

표 5 아세안이 참여한 다자협약체

구분	대상	주요 내용
ASEAN	아세안공동체(AC, 총 10개국)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개 분야별 공동체 이행
ASEAN+1	아세안과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대화상대국은 한국, 중국, 일본 포함 총 11개국)	고위급회담, 정상회담의 제도화를 통한 다층적 협력아젠다 집행
ASEAN+3	ASEAN+한·중·일(총 13개국)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주요 각료회의, 고위관료회의, CRP+3 회의 등 20개 분야 60여 개 정부 간 협의체 운영
ASEAN+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권이자,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성격
ASEAN+8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인도,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 총 18개국)	정책 대화의 장: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6대 중점 협력분야: 환경/에너지, 금융, 교육, 보건, 재난관리, ASEAN 연계성
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SEAN Regional Forum) (대화상대 10개국, 기타 7개국 포함 총 24개국)	대화와 협력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1994년 출범 대화상대(10개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의장국 기타(7개국): 파푸아뉴기니, 몽골, 북한, 파키스탄,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ASEAN+역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아세안-인도대화 아세안-러시아대화	지역 간 협의체에 참여

출처: 저자 정리.

주목받았다면, 현재는 각 지역을 하나의 대화·협력의 단위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를 대화상대방에게 상호 인정받는 담론적·제도적 실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주요 사례를 검토할 것인데, 바로 동아시아 역내외 국가들이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으로서 아세안+N 전략, 동북아 FTA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전해 온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다.<sup>2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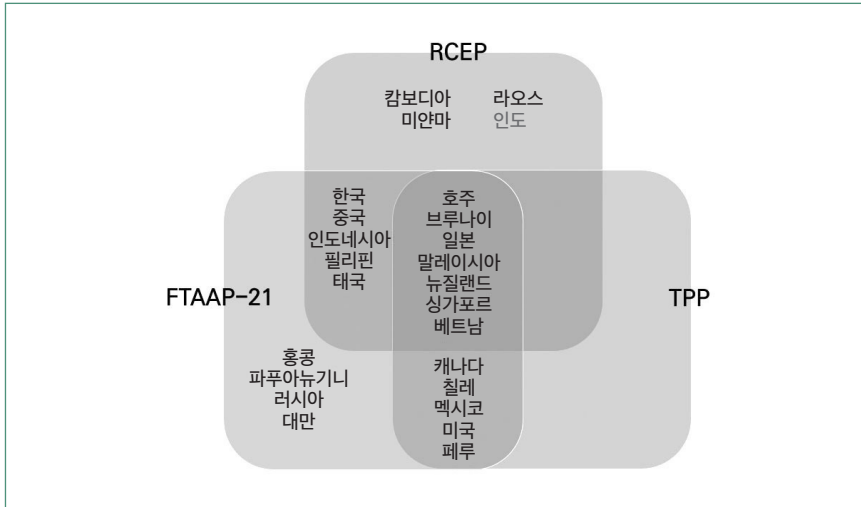
<sup>29</sup>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네트워크의 확대·발전은 지역형성 및 지역통합의 주요한 동력이지만, 보

우선, 동아시아 지역이 '지역'으로서 작동하고 다른 지역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은 앞서 이야기한 아세안과 다른 국가·지역과의 대화채널인 아세안+N이라 할 수 있다. 아세안+N 전략은 '아세안 중심성'을 기본원칙으로 활용하면서 동아시아 역내외의 주요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대화할 수 있는 다자협의체의 기본 플랫폼으로서 기능한다. '지역'에 미달하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인식과 공동 실천의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외부의 주요 국가들까지 포함하여 동아시아의 현안 과제를 논의할 대화의 기반을 제공한다. 아세안+N 전략의 시초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의 과정에서 출현했지만, 이후 아세안+1, 아세안+3, 아세안+6, 아세안+8 등 일련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확장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제도화된 형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다.

아세안+N 전략은 유럽의 방식과는 다른 (동)아시아의 지역 형성 측면을 보여 주고, 동남아시아 공동체로의 지역주의 심화와 동아시아로의 지역주의 확대라는 이중운동으로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틀을 제시해 준다(김형중, 2017: 200). '전장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광장으로'(박사명, 2007)으로 진화해 온 동남아시아 지역의 아세안 방식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동남아시아를 만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세안을 통해 다른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주요 현안에 대해 '적어도' 대화·협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러한 기반하에서, 동아시아 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다양한 동아시아 지역 전략과 지역 구상들은 상호 경쟁하면서도 새로운 지역주의의 기틀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Yeo, 2019).

다음으로,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발전을 들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고 2012년부터 협상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타결되지 못한 반면, 아세안+6 간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은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자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가속화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성격을 지닌다. RCEP은 아세안 입장에 보았을 때는 아세안+1 FTA를 아우르는 협정

다 세부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로 미룬다.



출처: 저자 정리.

\* 인도는 RCEP의 대상국이었지만 현재까진 가입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회색으로 표기했다.

### 그림 3 경합하는 메가FTA

으로 기존 협정의 공고화라는 성격을 갖고 있고, 동북아시아 입장에서는 최초로 한국, 중국, 일본이 동시에 참여하는 첫 무역협정이다(오수현 외, 2020). RCEP이 앞으로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더욱 활성화된 경제협력 레짐으로서 기능한다면, 아세안과 한·중·일, 즉,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가 더욱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역단위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RCEP은 동아시아 지역 내외부를 횡단하며 양자 FTA의 규모와 효과를 뛰어넘는 메가 FTA 체결 또는 메가지역 블록화란 점에서, 강대국 중심의 질서 및 지역전략과도 중첩되는 과제를 남겨 두고 있다. RCEP은 아세안 주도의 포괄적 경제협력 레짐으로, 일본과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이하 'TPP'), 중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이하 'FTAAP')와는 중첩되면서도 경합적이다. 아세안은 대내적 결속을 통한 집단적 정체성 및 지역적 탄력성의 강화와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협력체들을 통해 외부 참가국들에게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정치경제협력의 허브이자, 강대국들에

계 정치적·경제적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변창구, 2015). 향후 이러한 중심성이 지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경제적 연결성이 단지 동아시아 지역 내로만 그치지 않고 지역 내외를 횡단하며 다른 지역·국가와 연동한다는 점은 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 IV. 결론: 동아시아에 대한 메가아시아적 접근의 과제

동아시아에 대한 메가아시아적 접근은 기존의 동아시아담론이나 동아시아공동체론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기하기보다는, '동아시아'란 질문을 아시아와 세계 차원으로 확장할 필요와 가능성을 제시한다. 아세안 방식으로 지역성을 고도화해온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험과 유산은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이 자기구성하는 '동아시아 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연동되는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를 제기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가,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와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한 네트워크적 접근의 필요를 제기하는 동시에, 기존 동아시아 질서의 복고적 상상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재인식해 볼 필요를 제기한다.

최근 아시아의 세기와 더불어 다시 한 번 '범아시아주의/아시아중심주의'가 범람하고 있지만, 기존 강대국 중심의 역사 인식 및 복고적 상상에 대한 연구와 비판적 재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일본의 전전 구상, '중화중심/복고주의'로 우려되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미국의 아시아로 회귀 이후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이 갖는 '아시아중심주의'는 현실적인 국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를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정당화하며 다른 국가에 투사한다. 하지만, 시작과 종단만이 아닌 연결점들과 과정에 대한 중시,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 대한 인식과 주변으로부터의 사유·경험에 대한 관심은, 역사적으로 아시아는 네트워크 지역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두아라, 2014: 19-20).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연결들이 '네트워크화된 지역(networked region)'을 구성해 왔고, 네트워크화된 지역은 제국의 힘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지역들의 연결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을 역내외에 연결하고

있는 역사적 교류와 문명의 유산에 대해 재해석이 필요하다.

더욱이, 기존 동아시아 질서를 중화 중심적인 단일 질서로 해석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질서가 중첩적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제 간 연구는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동아시아 세계를 중국적 세계 질서로 해석했던 니시지마(西嶋定生)의 ‘동아시아세계론’ 및 ‘책봉체제론’(西嶋定生, 1962, 1970)과 페어뱅크 등의 조공체제론은 공통적으로 중화사상을 강조하고 수직적 세계질서를 도출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이미 국내 학계에서도 다수 지적되어 왔다. 우선, 중국 중심의 일원적 질서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만일 책봉체제를 통해 객관적으로 하나의 지역 세계를 규율하는 질서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려면, 책봉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관계가 책봉자와 피책봉자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다수의 피책봉자 간의 다자관계에서도 관철되었어야 할 것(구병진, 2010: 310)이나, 이러한 예는 고대, 중세, 근세에도 보이지 않는다(김병준, 2010).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질서가 가장 넓은 범위에서 작동한 것은 분명하나, 그것만이 유일한 국제질서가 아니라 다수의 지역 국제질서가 중층적으로 존재한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의 지역을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으로 한정하는 대신, 북아시아의 유목민족이나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범위를 넓히고 이 넓은 지역 속에 다양한 질서 체제가 존재했음을 인정할 필요 또한 존재한다.

메가아시아적 접근방식은 그동안 동북아 중심적인 담론·실천에 주목해 왔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전적 과제를 제기한다. 어쩌면,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신북방정책, 한반도신경제지대와 연계한 새로운 지역 전략을 시도한 것 또한, 현재 ‘지역’과 지역주의를 통해 각축·경쟁하는 세계적인 현상 속에 뒤늦게나마 뛰어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상상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동남아 및 아시아와 교류 경험과 인식·실천이 풍부했던 국가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었지만, 무조건적인 단점만은 아니다. 최근 신남방 정책이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기존에 비해 많은 환영을 받을 수 있었던 바는, 역내 침략과 위협을 가하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과 중견국으로서의 지위가 보다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기대로부터 비롯되었던 덕분이기도 하다.

동아시아공동체론에서 제기하듯, 동아시아 지역을 거점으로 한국의 참여를 늘리면서 지역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은 매우 중요하다. 어찌면, 최근 홍콩, 태국, 미얀마 시위 등을 두고 한국 내에서 벌어진 논란과 시민사회의 개입 노력은 국가적인 시야, 경제적인 실용주의적 시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사회를 향한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 주기도 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에서 경제적·실리적 함의가 크고, 최근 국내의 동남아시아 출신 인구에 대한 태도 등에서 보건대, 한국 사회 스스로 동아시아를 어떻게 내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해법은 이제 비로소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메가아시아적 접근이 기존 강대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국 중심의 이해를 지역에 투사하는 지역 전략과 커다란 차이를 갖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적인 연계와 연동에 주목하는 동시에 자기 성찰적이고 상호 참조적인 동아시아 담론의 유산을 현재화하고 정치·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환경/생태적인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을 새롭게 내포하여 재인식하고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동아시아'가 유동적이고 중층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한국 학계에 '동아시아'에 친착하는 동시에, '동아시아'를 아시아와 세계와 연결하는 또 한 번의 작업을 시작해 볼 필요를 제기한다. 동남아시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인식은 그런 측면에서 외연을 확대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역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내포하고, 이를 강대국 중심의, 국가 중심의 접근만이 아닌 사회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계기와 주요 사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메가아시아적 접근방식은 제국/제국주의로의 회귀가 아닌, 연결성과 이동성에 기반한 네트워크적 사고에 기반하고, 이러한 연동되고 연결된 네트워크의 방식으로 (동)아시아를 새롭게 바라볼 필요와 과제를 시론적으로 제기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관련된 후속 연구를 학제 간, 국내외 공동연구를 통해 활발히 진행할 필요를 적극 제시하고자 하며, 본 연구진 또한 제기한 수많은 후속 및 관련 과제에 대해 성실히 지속 연구에 임할 것임을 밝힌다.

투고일: 2021년 6월 15일 | 심사일: 2021년 7월 14일 | 게재확정일: 2021년 7월 30일

## 참고문헌

- 고성빈. 2012. “동아시아담론: 이론화를 향한 시론.” 『국제지역연구』 21권 4호, 93-137.
- 구범진. 2010.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조선-청 관계.” 이익주 외. 『동아시아 국제질서속의 한중관계사: 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 김기석. 2015. 『동아시아공동체로의 머나먼 여정』. 인간사랑.
- 김대중. 1999. “1998년 베트남 방문 및 아세안 정상회담 참석 귀국기자회견.”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대통령비서실.
- 김병준. 2010. “3세기 이전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중관계: 조공·책봉의 보편적 성격을 중심으로.” 이익주 외. 『동아시아 국제질서속의 한중관계사: 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 김형중. 2017. “한국의 아세안 연구: ‘아세안학’의 모색.” 『아시아리뷰』 7권 1호, 199-226.
- 나탈레가와, 마티 저. 최기원 역. 2019. 『아세안은 중요한가?(Does ASEAN Matter?)』. 문학사상.
-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 1966[1997].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최원식·백영서 편. 1997.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71-95. 문학과지성사.
- 두아라, 프라센짓. 2014. “인류세에서 아시아 연구의 의제.” 『아시아리뷰』 4권 1호, 15-23.
- 딜릭, 아리프(Arif Dirlik). 2000. “역사와 대립되는 문화인가?: 동아시아 정체성의 정치학.” 정문길·최원식·백영서·전형준 편. 2000.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80-112. 문학과지성사.
- 박변순. 2014. “EAVGII 이후의 대아세안+3 협력.”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 공동체: 동향과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 \_\_\_\_\_. 2019. 『아세안의 시간』. 지식의 날개.
- 박사명. 2007. “시장에서 광장으로: 동아시아의 발전주의적 경쟁을 넘어서.” 『동남아시아 연구』 17권 2호, 1-31.
- \_\_\_\_\_. 2008. “동아시아공동체의 의의와 과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이매진.
- \_\_\_\_\_. 2014. “아세안 공동체와 동아시아 공동체.” 『동남아시아연구』 24권 3호, 1-44.
- 박상수. 2013. “동아시아 근대 ‘아시아주의’ 독법: 계보, 유형, 층위.” 『아세아연구』 56권 4호, 105-160.
- 박승우. 2011.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리뷰.” 『아시아리뷰』 1권 1호, 61-110.
- 배공찬. 2008.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전개과정: ASEAN+3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 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이매진, 45-103.
- \_\_\_\_\_. 2014.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전개와 문제점: 동아시아공동체 비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 공동체: 동향과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 백영서. 2000.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작과비평사.
- \_\_\_\_\_. 2011. “연동하는 동아시아, 문제로서의 한반도: 담론과 연대운동의 20년.” 『창작과비평』 39권 1호(통권 151), 15-37.
- 백월담. 2010. “아시아 지역연구의 문화정치적 전환 문제.” 『중국현대문학』 55호, 127-162.
- 변창구. 2015.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있어서 ASEAN의 중심성: 평가와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77호, 5-25.
- 서정경·원동욱. 2009.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중국의 대응전략.” 『한국정치학회보』 43집 2호, 263-286.
- 손정렬 외. 2018. 『네트워크로 바라본 아시아: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신범식. 2019.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국제정치적 이해: 초국경 소지역협력 이론화의 과제들.” 김의영·미우라 히로키 편.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와 초국적 협력』, 서울: 푸른길.
- \_\_\_\_\_. 2021. “부상하는 메가아시아: 역사와 개념.” 『아시아브리프』 1권 15호.
- 신윤환. 2004.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탈동북아중심주의적 관점.” 한국동남아연구소 월례발표회 발표문, 2004. 5. 29.
- \_\_\_\_\_. 2009. “동남아의 지역주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그 역사에 대한 재해석.” 『동아연구』 56권, 107-137.
- \_\_\_\_\_. 2014. “EAS의 발전과 한국의 동아시아 협력 전략: EAS, 아세안+3, 아세안 문건들에 대한 분석.”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 공동체: 동향과 전망』, 257-281. 아산정책연구원.
- 쑤저 저. 윤여일 역. 2013. “아시아를 말한다라는 딜레마.” 『사상이 살아가는 법』, 돌베개.
- 오수현·라미령·연원호. 20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3권 36호, 1-18.
- 왕후이 저. 이옥연 외 역. 2003. 『아시아 상상의 계보』, 창작과비평사.
- 외교부. 2020. 『아세안 개황』, 외교부 아세안국 아세안협력과.
- 윤여일. 2015. 『탈냉전기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과 이행에 관한 지식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6. 『동아시아 담론: 1990~2000년대 한국사상계의 단면』, 돌베개.
- 윤여일 외. 2018. 『연동하는 동아시아를 보는 눈』, 창작과비평사.
- 윤진표. 2020. 『현대 동남아의 이해』(제2판). 명인문화사.
- 이근. 2006. “한국 외교정책, 패러다임을 바꿔라: ‘약소국 현실주의’를 극복하고 ‘세계질서 관리’ 나서야.” 『신동아』 2006(1).
- 이성시 저. 박경희 역. 2001.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만들어진 고대: 근대 국민 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 삼인.
- \_\_\_\_\_. 2012. “일본 역사학계의 동아시아세계론에 대한 재검토: 한국학계와의 대화로부터.” 『역사학보』 216집, 57-80.
- 이재현. 2008.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역내 리더십: 마하티르와 김대중의 동아시아지역협력의 구상.”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105-132. 이매진.
- 이정훈·박상수, 2010. 『동아시아 인식 지평과 실천 공간』, 아연출판부.
- 이창남. 2009. “글로벌 시대의 로컬리티 인문학: 개념과 과제를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1, 75-106.
- 이철호. 2012.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론과 중국: 구상과 현실.” 『일본비평』 6호, 98-123.
- 장인성. 2017.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문길·최원식·백영서·전형준 편. 2000.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 최경희. 2021. “아시아의 연결: 동아시아 속 북한과의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상.” HK+국가전략사업단 엮음. 『아시아와 북방, 문화접점의 확인: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383-420. 다해.
- 황인원. 2007. “‘확대지향’의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아세안의 대응.” 『동아시아 브리프』 2권, 116-123.
- 堀敏一. 1994. 『律令制と東アジア世界』, 東京: 汲古書院.
- 西嶋定生. 1962. “東アジア世界と冊封體制: 六-八世紀の東アジア.” 『岩波講座 日本歴史』 2. 東京: 岩波書店(西嶋定生. 1983.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 東京大學出版會에 재수록).
- \_\_\_\_\_. 1970. “序說—東アジア世界の形成.” 『岩波講座 世界歴史』 4. 東京: 岩波書店(西嶋定生. 1983.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 東京大學出版會에 재수록).
- Abalihin, Andrew. 2011. “‘Sino-Pacific’: Conceptualizing Greater Southeast Asia as a Sub-Arena of World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22-4, 659-691.
- Acharya, Amitav. 2000. *The Making of Southeast Asia: International Relations of a*

- Region*. Singapore: ISEAS.
- \_\_\_\_\_. 2011. “Asia is not One: Regionalism and the Ideas of Asia.” *ISEAS Working Paper: Politics and Society Series 1*, 1-24.
- Bangkok Declaration. 1967. <https://asean.org/the-asean-declaration-bangkok-declaration-bangkok-8-august-1967/>(검색일: 2021. 6. 20.).
- Chang, Kyung-Sup. 2014. “Asianization of Asia: Asia’s Integrative Ascendance through a European Aperture.” *European Societies* 16(3), 337-342.
- Chen, Kuan-Hsing. 2010. *Asia as Method: Toward Deimperialization*.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Cumings, Bruce. 1984.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s, and Political Consequen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8(1), 1-40.
- Duara, Prasenjit. 2010. “Asia Redux: Conceptualizing a Region for Our Time.” *Journal of Asian Studies* 68-4, 963-983.
- EAVG (East Asia Vision Group). 2001. *Towards an East Asian Community: Region of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 East Asia Vision Group Report.
- Hettne, Björn. and Fredrik Söderbaum. 2000. “Theorising the Rise of Regionness.” *New Political Economy* 5(3), 457-472.
- Kaup, Katherine Palmer. 2021. *Understanding Contemporary Asia Pacific*(second edition). USA: Lynne Rienner.
- Langenhove, Luk Van. 2011. *Building Regions: The Regionalization of the World Order*. UK: Ashagte.
- Lieberman, Victor. 2003. *Strange Parallels: Southeast Asia in Global Context, c.800-1830, Volume I: Integration on the Mainl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9. *Strange Parallels: Southeast Asia in Global Context, c.800-1830, Volume II: Mainland: Europe, China, South Asia and the Island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nning, Rober A. 1993. “The Asian Paradox: Toward a New Architecture.” *World Policy Journal* 10(3), 55-64.
- Milner, Anthony and Deborah Johnson. 1997. “The Idea of Asia.” In John Ingelson, ed. *Regionalism, Subregionalism and APEC*. Melbourne: Monash Asia

Institute.

- Mittelman, James H. 1996. "Rethinking the 'New Regionalism'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Global Governance* 2(2), 189-213.
- Pempel, T. J., ed. 2005. *Remapping East Asia: The Construction of a Region*. Cornell University Press.
- Saaler, Sven and Christopher W. A. Szpilman. 2011. "The Emergence of Pan-Asianism as an Idea of Asian Identity and Solidarity, 1850-2008." In Saaler and Szpilman, eds. *Pan-Asianism: A Documentary History. Vol. 1: 1850-1920*.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 Inc.
- Schmitt-Egner, Peter. 2002. "The Concept of 'Region':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Notes on Its Reconstruction." *European Integration* 24(3), 179-200.
- Severino, Rodolfo C. 2001. "The ASEAN Way and the Rule of Law." [https://asean.org/?static\\_post=the-asean-way-and-the-rule-of-law](https://asean.org/?static_post=the-asean-way-and-the-rule-of-law)(검색일: 2021. 6. 30.).
- Singh, Upinder and Paul Pandya Dhar, eds. 2014. *Asian Encounters: Exploring Connected Histories*.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So, Alvin Y. and Stephen W. K. Chiu. 1995. *East Asia and the World Economy*.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 Storms, M., M. Cams, I. J. Demhardt, F. Ormeling, eds. 2019. *Mapping Asia: Cartographic Encounters Between East and West*. Springer.
- Subrahmanyam, Sanjay. 2016. "One Asia, or Many? Reflections from Connected History," *Modern Asian History* 50(1), 5-43.
- Sum, Nagai-Ling. 2018. "The Production of Trans-regional Scale: China's 'One Belt One Road' Imaginary." In Anssi Paasi, John Harrison, Martin Jones, eds. *Handbook on the Geographies of Regions and Territories*, 428-443.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 Treat of Amity and Cooperation. <https://asean.org/treaty-amity-cooperation-southeast-asia-indonesia-24-february-1976/>(검색일: 2021. 6. 30.).
- Webster, Timothy. 2007. "Bilateral Regionalism: Paradoxes of East Asian Integration." *Faculty Publications* 555.
- Yeo, Andrew. 2019. *Asia's Regional Architecture: Alliances and Institutions in the Pacific Centur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 'East Asia' as a 'Region': Implications of a Mega-Asian Perspective to East Asia

Jongseok Y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Kyungee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Joohyu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This study raises the need to expand the 'East Asia' concept beyond Northeast Asia centered on the Korean Peninsula to Southeast Asia, and to more actively examine the implications and tasks of East Asia, which are reconstructed through horizontal and external interactions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Rather than being presented as a criticism and alternative to existing East Asian discourse and East Asian community perspective, the Mega-Asian approach raises the need and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question of 'East Asia' to the Asian and global dimensions. The ASEAN+N strategy, which emerged through experience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that have formed regions in an ASEAN way, as a platform, suggests the need to start researching the use of 'East Asian regions', and 'regions' unit/concept through interaction with other regions. In the process, studies of socially constructed 'East Asian regions' derive challenges and implications of the Mega-Asian approach as a networked whole region, raising the need for a network perspective, including regional units and various actors.

**Keywords** | Korea, East Asia, Northeast Asia, Southeast Asia, Region, Mega-Asian perspective

